

한국 여성문학 연구 장의 변전과 과제

-<한국여성문학학회>를 중심으로-

김양선*

〈차례〉

1. 서론-한국 여성문학 연구 장의 형성과 <한국여성문학학회>
2. 여성문학·문화 연구 동향과 쟁점
3. 『여성문학연구』, 독자성과 계도화 사이에서 씨름하기
4. 여성의 관점에서 한국문학 연구를 젠더화하기(gendering)
5. 여성문학 연구의 근경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여성문학학회>를 중심으로 여성문학/문화와 관련하여 어떤 의제들을 생산했는지, 제도-아카데미 장 내로 진입한 여성문학연구 장 내부의 연구지형의 변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지,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여성문학학회>는 여성문학 연구를 제도권 안으로 견인함으로써 연구 장의 영역을 확장하고, 공론화하려는 여성문학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표출된 결과이다.

2장에서는 학회가 여성문학·문화연구의 동향과 쟁점을 어떻게 선도했는지 학술대회 주제, 기획출판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학술지 『여성문학연구』의 ‘여성주의적’ 관점이라는 구속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하였다. 학술지의 전체 논문을 필자의 성별, 대상 시기, 연구 분야, 대상 작가 분포도, 학술지 체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여성

* 한림대학교 교수

필자-현대문학-작가, 작품론 중심이라는 통계 및 분석 결과는 『여성문학연구』가 여성문학이라는 특정 분야의 독자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기도 하지만 자칫 여성필자-현대문학-작가, 작품론 중심의 계도화에 머물 위험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문학 연구의 독자적 존립가능성, 신진 여성연구자의 증가 등은 국문학 연구 분야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이 관철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문학 연구의 제도화와 여성(주의) 문학론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이 모호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여성문학 연구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성찰, 재정립, 둘째, 여성문학 연구 영역의 확장, 셋째,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 넷째, ‘국문학’ 연구의 틀을 벗어나 동아시아 여성문학, 영미 여성문학과의 접점을 찾음으로써 지역별, 민족별로 ‘같으면서도 다른’ 여성문학의 쟁점 및 전망을 설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어: 한국 여성문학 연구, 문학연구 장, 『여성문학연구』, 여성주의적 시각, 독자성, 계도화

1. 서론-한국 여성문학 연구 장의 형성과 <한국여성문학학회>

본고는 지난 14년 간 국문학 연구 장에서 여성문학연구라는 일관된 시각을 견지해 온 <한국여성문학학회>¹⁾를 중심으로 한국 여성문학 연구 장의 변천과 의미, 그리고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²⁾ 최근 제도로서의 문

1) <한국여성문학학회>는 1998년 12월 5일 창립되었다. 한국문학과 문화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그 성과를 보급, 교류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발전과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회장 1인, 총무이사 1인,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기획위원회 외에 정보, 섭외, 재정, 지역 각 부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현재 회원 수는 300여 명에 이른다.

2) 본고는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창립 심포지엄-각 학문 영역에서 여성주의 연구

학 혹은 문학제도 연구는 등단제도와 문예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뿐만 아니라 대학으로 대표되는 제도적, 물적 토대가 학술담론이나 연구경향에 미친 영향까지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문학 연구와 비평이 분리되고, 문학 연구의 하위 분과로서 근·현대문학이 195·60년대 이후 대학 제도 내에서 자리 잡았지만³⁾ 국어학, 고전문학, 근·현대문학, 국어교육학이라는 국문학 연구 장의 강고한 틀 안에 여성문학이라는 시기와 장르를 횡단하는 연구 스펙트럼이 자리잡을 여지는 없었다. 국어국문학과의 설립과 함께 문학을 학적 대상으로 삼는 아카데미즘화 경향이 학회의 설립을 추동했지만⁴⁾ 예외의 위 네 영역의 틀을 오랫동안 고수해 왔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국문학 연구 장 안에서도 시기별, 장르별로 연구 영역을 특화한 소규모 학회들이 늘어나면서 여성문학이라는 예외 특화된 연구영역 역시 존립할 가능성이 생겨났다.⁵⁾

본고는 국문학 연구 장 안에서 여성문학 연구 장이 독자성을 확보하게 된 계기가 <한국여성문학학회>의 출범과 활동에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 여성문학 연구가 집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기를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1980년대 중·후반으로 보고 있다. 1980년대 민족문학론의 분화과정

의 도전과 과제(2012년 9월 22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여성과 젠더 연구를 수행하는 여러 학회들의 연구성과 및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심포지엄의 성격상 발표의 내용과 형식이 미리 주어졌는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서론-학회 현황 소개, 2. 학회의 성립 배경-분과학문에서 독립한 배경과 과정, 3. 여성(젠더) 연구 동향과 관련 쟁점-연구사 리뷰, 4. 여성(젠더) 연구가 분과학문에 끼친 영향-젠더 관점의 연구가 각 학문에 기여한 내용, 5. 여성연구자들의 지위, 6. 향후 과제 순이다. 본고 역시 원래의 발표문을 토대로 여성문학 연구장에서 '한국여성문학학회'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을 밝혀둔다.

- 3) 소영현, 『제도과 문학: 문학의 아카데미즘화와 학술적 글쓰기의 형성』, 『한국근대문학연구』 2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0, 265~266면.
- 4) 소영현, 앞의 논문, 281면.
- 5) 이천 년대 들어 국문학 연구 장이 학회와 학술지 지원 중심의 학술진흥재단 시스템으로 재편되는 와중에도 여성문학 연구 분야는 가장 뒤늦게 편입되었다. 국어국문학 연구 분야의 하위 카테고리 여성문학이 추가된 것은 <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와 같은 관련 학회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속에서 당시 페미니즘 문학론으로 불렸던 여성(주의)문학론은 민족문학론과 자유주의 문학론의 ‘반여성성’을 비판하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했다. 특히 <여성>지 그룹과 <또하나의 문화> 그룹으로 불렸던 두 집단의 입장 차이는 서구 페미니즘 이론의 수용 문제, 민족·계급·성 중 어떤 범주를 여성 억압의 주요인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⁶⁾ 초기 여성(주의)문학론이 뿌리내리는 데 실천적인 기여를 했다. 1985년 『여성』 1호에 발표된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은 여성의 눈을 새로운 비평 척도로 제시한 첫 시도였다.⁷⁾

이런 현장비평에서의 변화와 달리 국문학 아카데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여성연구자의 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젠더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여성작가 연구나 여성문학적 관점의 문학사 연구는 남성 위주의 연구풍토에서 석·박사 논문의 주제로 채택되기 힘들었고, 여성문학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은 개별적으로 외부의 학술 연구단체를 물색하거나 자발적으로 연구 모임을 결성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문학 연구가 국문학 아카데미의 장으로 진입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90년대 초, 중반 국문학 연구 분야의 핵심 쟁점은 근대성, 민족(주의), 탈식민주의로 요약된다. 근대성에 대한 탐색은 자연스레 신여성 담론이나 신여성의 재현 등으로 연결되었고,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여성’의 시각이 전제

6) <여성>지 그룹(나중에 <여성과 사회>로 발간지명이 바뀜)은 민족주의, 민중주의 문학론의 이념적 계보와 맞닿아 있었으며, <또하나의 문화> 그룹은 민족이나 계급보다는 여성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7) <한국여성문학학회> 학회지인 『여성문학연구』 창간호에서 이상경은 이 글과 김영혜·이명호·이혜경의 『여성문학론 정립을 위한 시론』(『여성운동과 문학』, 실천문학사, 1988)을 외국문학이론에 기대지 않고 한국의 현실에 기반한 독자적인 여성문학론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근대 여성작가와 여성문학론의 복원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는데, 이는 학회 초기 학술대회와 학술지 연구성과물들로 모종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상경, 『한국 여성문학론의 역사와 이론』, 『여성문학연구』 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11~12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1980년대 후반 이후 영미나 프랑스 페미니즘 이론이 번역되면서 ‘여성적 글쓰기’나 ‘여성성’ 개념이 고전-현대를 잇는 한국문학 여성작가들의 글쓰기 행위를 재조명하는 데에도 유효한 방법론으로 대두했다.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 했던 여성작가들의 글쓰기와 기존의 문학사를 다른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국문학 연구 분야의 새 의제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기존의 남성 위주의 연구풍토에서 여성문학 이론 및 방법론은 작가와 작품, 그리고 문학사의 전체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 하는 부차적인 연구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이런 관행을 극복하고자 개별적으로 혹은 소모임 단위로 여성문학을 연구하던 여성연구자들이 독자적인 학회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학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이는 국문학 아카데미로 지칭되는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진 1980년대 중후반, 1990년대 초반의 여성문학 연구를 제도권 안으로 견인함으로써 연구 장의 영역을 확장하고, 공론화하려는 여성문학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여성문학학회>가 구체적으로 여성문학·문화와 관련하여 어떤 의제들을 생산했는지, 제도-아카데미 장 내로 진입한 여성문학연구 장 내부의 연구지형의 변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지,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여성문학·문화 연구 동향과 쟁점

다른 국문학 학회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여성문학학회>의 주요 활동 역시 정기 학술대회와 학술지 발간으로 대별된다. 먼저 학술대회 주제를 일람하면 여성문학·문화 연구의 추이와 쟁점을 파악할 수 있다. 주제는 아래와 같다.

- 1회 : 한국여성문학의 선 자리, 갈 길
- 2회 : 한국여성문학과 여성담론-침묵 속의 목소리
- 3회 : 한국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존재방식
- 4회 : 한·중·일 국제 학술대회 :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신여성문학
- 5회 : 여성의 몸, 몸의 담론
- 6회 : 여성의 눈으로 정전 다시 읽기
- 7회 : 현대문학에 나타난 제국주의와 여성 수난
- 8회 : 여성 자기서사체의 새로운 인식
- 9회 : 진보적 민족문학에 나타난 여성상
- 10회 : 한국문학에 나타난 전쟁과 여성
- 11회 : 여성 문학사의 지평 확장을 위하여(1): 새로 읽는 여성 작가
- 12회 : 근대 한국여성의 서양인식, 서양체험과 문학
- 13회 : 한국문학에 나타난 가족의 내부와 외부, 그리고 여성
- 14회 : 여성문학 공간과 '다른' 문학의 생성
- 15회 : 여성문학 연구의 쟁점과 반성적 성찰
- 16회 : 매체와 여성 문학, 여성 문화
- 17회 : 5·18의 문학·문화적 재현과 젠더
- 18회 : 전후 한국문화와 교양, 여성, 미디어의 젠더 정치
-1950, 60년대 여성 잡지 『여원』의 문화담론
- 19회 : 제2회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학술대회-여성과 종교
- 20회 : 젠더와 양식(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 21회 : 여성, 1950년대 문화지형
- 22회 : 여성, 이주(移住)와 정주(定住)사이
- 23회 : 제3회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학술대회-4.19혁명과 여성
- 24회 : 여성의 글쓰기와 여성지성의 창출
- 25회 : 한국 근대사와 박완서
- 26회 : 21세기 여성문학·문화 연구의 쟁점과 전망
- 27회 : 제4회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학술대회-여성과 문명, 젠더정치

28회 : 젠더와 번역, 여성 지(知)의 형성과 변전(變轉)

위 학술대회 주제는 국문학 분야에서 여성문학 연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연구 주제는 근대성과 민족주의(4회, 9회, 12회), 탈식민주의 연구(7회), 여성작가 재조명 내지 발굴(1회, 4회, 11회), 여성의 시각에서 남성중심적 정전 재해석(6회, 9회), 여성적 글쓰기와 여성의 몸(2회, 5회, 8회), 여성 교양-지(知)의 생산(18회, 24회, 28회), 매체와 문화연구(16회, 18회, 21회)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연구 주제는 국문학 연구 장의 쟁점을 세심히 읽어내면서 이를 여성의 시각에서 재전유하고 있다. 1990년대 근대성과 탈근대성, 민족주의와 포스트 민족주의,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에서 이천 년대 중반 이후 제도와 매체, 문화 연구로 축이 이동하고 있는 정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16회 이후 학술대회 주제가 『여원』과 같은 특정 잡지 분석, 특정 시대 문화지형에 대한 검토, 매체 및 문화 연구 방법론 모색, 여성 교양-지의 형성에 정향되어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또한 학술대회는 중간 중간 해당 시기에 쟁점이 되었던 한국 여성문학 연구들을 재점검하고 성찰적으로 분석하는 기회를 가져 왔다. 대표적으로 ‘여성문학 연구의 쟁점과 반성적 성찰’(2005년), ‘21세기 여성문학·문화 연구의 쟁점과 전망’(2011년)에서는 여성문학/문화 연구와 관련된 쟁점을 훑어내고, 전망을 모색하고 있다.

‘여성문학 연구의 쟁점과 반성적 성찰’의 소주제는 다음과 같다. 고전 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 재고, 고전시가의 여성화자 문제, 현대 시 비평에 나타난 여성화 전략 연구, 민족과 젠더 연구의 동향과 쟁점, 몸 담론 연구의 동향과 쟁점. 학회가 출범한 후 중반부쯤에 이루어진 쟁점 분석에서는 주로 여성주의적 시각의 문제, 여성적 글쓰기, 민족과 젠더 연구, 몸 담론 연구 등을 다루었다.

‘21세기 여성문학·문화 연구의 쟁점과 전망’은 2000년 이후 10년 동안 진행된 여성문학·문화 연구의 성과들을 돌아보고, 이에 대한 성찰적 반

성과 발전적 제언을 시도하였다. 문학·문화 이론, 여성주의 비평에 대한 성찰과 제언 및 ‘전통시기-근대전환기-식민지 근대’문학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여성문학의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제1부 결핍과 과잉, 여성주의 이론의 도약을 위하여>의 소주제 제목은 ‘불/가능한 싱글 라이프: 섹스앤더씨티와 맥도널드 할머니 사이의 삶’, ‘젠더 지형의 변화와 페미니즘의 미래-여성문학 연구의 이론과 실천’, ‘곤경에 처한 21세기 여성주의 비평’이다. 이천 년대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여성주의 이론과 비평, 문학연구가 ‘더 이상’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곤경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여성주의 (문학) 연구, 나아가 여성주의 이론 생산주체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제2부 문학, 문화 연구의 현황과 비평 정신의 회복>의 소주제들은 이천 년대 이후 고전, 근대전환기, 식민지 시기 여성문학/여성문화 연구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학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출간한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2008)에서는 그 동안 학회지에 실렸던 논문 중 여성문학 연구의 과거와 현재, 앞으로의 과제를 핵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였다. <제1부 총론-여성문학비평론>에서는 여성주의 인식론이나 미학의 문제,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 젠더 연구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짚었다. <제2부 근대성, 민족, 여성>에서는 근대성 담론, 민족주의와 탈식민주의와 여성(성)간의 경합과 배제의 동학을 규명하였다. <제3부 여성적 글쓰기와 여성작가의 탄생>에서는 여성적 글쓰기와 관련된 이론 및 텍스트 적용 가능성, 그리고 근대문학 제도 형성과정에서 여성작가의 존재를 규명하였다. <제4부 젠더, 섹슈얼리티, 문화>에서는 문학연구에서 문화연구로의 전환가능성을 타진한 연구 성과들에 주목하여 여성주의 문화, 섹슈얼리티의 재현 등을 다루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그간 <한국여성문학학회>는 기존 문학사의 남성중심적 시각을 비판하고 독자적인 여성문학사 서술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민족(주의) 담론과 젠더정치학 간의 관련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부터, 여성문학이 탈민족 담론으로 경도되는 것을 경계하는 연구까지 상이한 입장들을 수렴하기도 했다. 초기의 ‘문학’에 정향된 연구에서 중반 이후에는 ‘문화’ 분야까지 확대되었고, 특히 최근 몇 년 간 잡지, 신문 등 매체연구, 문학제도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눈에 띈다. 다음 장에서는 연구 동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학술지 『여성문학연구』를 분석하였다.

3. 『여성문학연구』, 독자성과 계도화 사이에서 씨름하기

『여성문학연구』는 창간 이래 결호 없이 2012년 6월 현재 총 27호까지 발간되었다. 『여성문학연구』는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작가, 작품 및 제반 문화 현상을 연구한 논문과 서평, 기타 학술기획물을 싣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즉 학회지의 성격상 연구대상이 ‘한국문학과 문화’이고, 방법론으로는 ‘여성주의적’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는 구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 외 필자의 성별이나 연구 대상 시기나 장르에서는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여성주의적’ 관점이라는 구속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해 보겠다.⁸⁾

『여성문학연구』 1호에서 27호까지에 실린 논문의 총 편수는 321편이다. 연구동향 및 학회지의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 필자의 성별,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비중, 문학을 제외한 매체의 비중(영화 및 시나리오, 연극, 잡지 등), 국내필자와 외국필자의 비중 등을 조사하였다. 단 여기서 필자의 경우 여성문학 관련 연구자의 수가 한정적인 것을 감안하면 중복될

8) 이 장의 연구방법론은 주 1)에 언급한 심포지엄에서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와 해당 학회의 학술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현황을 발표한 최기숙의 실증적 연구에서 영감과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둔다. 참고로 최기숙은 필자별 투고 횟수 및 성별, 성비, 연구분야별 현황을 통계로 제시하였다.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필자의 중복성과 상관없이 전체 논문 수에서 남/녀 성별 비율을 조사하였다. 특정 성별이 연구자의 연구경향을 결정짓는 지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이다. 또한 초기에 투고분야를 ‘문학’으로 한정했지만 이천 년대 들어 연구지형의 변화와 함께 ‘문화 전반’으로 분야를 넓혔는데 그것이 통계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지, 연구대상 시기나 작가, 작품에서 연구자의 분포 및 선호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조사 결과 여성필자 300편(93.5%), 남성필자 21편(6.5%)으로 여성필자의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남성필자의 경우 고전문학 분야 9편, 현대문학 분야 12편이었다.

[표 1] 호수별 필자 성별에 따른 논문 편수

권호	필자 성별		총 편수
	여성	남성	
1호 (1999-06)	12	3	15
2호 (1999-12)	11	1	12
3호 (2000-06)	15	0	15
4호 (2000-12)	13	0	13
5호 (2001-06)	13	1	14
6호 (2001-12)	12	2	14
7호 (2002-06)	14	1	15
8호 (2002-12)	11	1	12
9호 (2003-06)	10	0	10
10호 (2003-12)	11	1	12
11호 (2004-06)	11	4	15
12호 (2004-12)	15	1	16
13호 (2005-06)	14	0	14
14호 (2005-12)	9	1	10
15호 (2006-06)	11	0	11
16호 (2006-12)	12	2	14
17호 (2007-06)	12	0	12
18호 (2007-12)	10	0	10
19호 (2008-06)	13	0	13
20호 (2008-12)	8	0	8
21호 (2009-06)	8	0	8
22호 (2009-12)	10	0	10

23호 (2010-06)	9	0	9
24호 (2010-12)	11	0	11
25호 (2011-06)	8	1	9
26호 (2011-12)	10	0	10
27호 (2012-06)	7	2	9
총계	300	21	321

[표 2] 필자 성별 비율

성별	논문편수	퍼센트
여성	300	93.5%
남성	21	6.5%
총계	321	100%

이같은 결과는 『여성문학연구』와 유사한 성격을 띠면서 연구대상 시기가 더 한정적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의 학술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에서 남성필자의 비율이 31%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 또한 아래 표를 보면 현대문학 관련 논문은 273편(85%), 고전문학 관련 논문은 48편(15%)으로, 현대문학 분야 논문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

[표 3] 전공별 논문 편수

전공	논문 편수
현대문학	273 (85%)
고전문학	48 (15%)

이처럼 성별로는 여성, 대상 시기로는 현대에 치우친 이유는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최기숙의 분석대로 고전문학 분야의 경우 여성주의적 시각 및 방법론은 남성연구자들에게 한국고전문학을 독해하는 연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젠더연구’를 연구사적으로 유효하고 정당한 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⁹⁾ 즉 여성적(넓게는 젠더적) 시각은 고

9) 최기숙, 『탈경계 이후의 도전-‘여성’-‘고전’-‘문학’-‘사’를 매개하는 젠더비평의 학술사적 궤적과 방향』,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창립 심포지엄-각 학문 영역에서 여성주의 연구의 도전과 과제 자료집』, 2012.9, 33~34면.

전문학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국문학 연구 장의 암묵적인 동의 내지 승인을 이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현대문학 분야의 경우 연구자들이 여전히 ‘여성적(혹은 젠더적)’ 관점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이 자신의 연구분야를 협애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문학/고전문학/여성문학 연구자 풀이 한정되어 있는 현재 연구풍토에서 고전문학 연구자들이라면 시기적으로 좀 더 특화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를 우선 선택지로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두 학회¹⁰⁾가 연구 대상 시기에서 변별력을 확보한 것 이자, 앞서 언급했듯 국문학/여성문학 연구자 풀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학술지가 비록 한국문학/문화 분야라는 독자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학술지의 국제성, 학제 간 연구의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국외 필자, 비교문학 및 외국문학 논문의 분포도를 조사하였다.

[표 4] 국내/국의 필자별 논문 수

구분	논문 편수
국내	311 (97%)
국외	10 (3%)

[표 5] 전공별 논문 수

전공	논문 편수
국내문학	298 (93%)
외국문학	16 (5%)
비교문학	7 (2%)

위 표에서 드러나듯이 국내 필자 311편(97%), 국외 필자 10편(3%)¹¹⁾

1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는 2000년 1월 창립되었으며, 2012년 현재 학술지는 24호 까지 발간되었다.

11) 국외 필자의 국적은 미국 1, 베트남 1, 일본 4, 중국 4명이었다.

이었으며, 국외 필자의 국적은 주로 중국과 일본이었다. 이는 신여성, 디아스포라와 같은 최근 국문학 분야의 연구경향이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의 비교연구를 촉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문학 관련 논문은 16편(5%), 비교문학 관련 논문은 7편(2%)에 그쳤다.¹²⁾ 여성문학이 아직까지 글로벌한 맥락에 대한 고려나 경계 허물기에 적극적이지 못함을 반증한다.

한편 문학을 제외한 매체인 영화 및 시나리오, 연극, 잡지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영화(시나리오 포함) 12편(3.7%), 연극(희곡 포함) 5편(1.6%)에 그쳤으며, 잡지, 신문 연구는 25편(7.8%)에 달했다.¹³⁾

[표 6] 매체별 논문 수

매체	논문 편수
영화, 시나리오	12 (3.7%)
연극, 희곡	5 (1.6%)
잡지, 신문	25 (7.8%)

이 연구들을 합친다면 약 13% 정도가 매체 연구에 해당한다.¹⁴⁾ 즉 여전히 문학, 그 중에서도 현대문학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잡지나 영화를 비롯한 매체 연구의 비중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최근 국문학 연구 분야에서 제도사, 매체연구, 문화연구 등 학제 간 연구가 활성화 되어 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통계 결과 『여성문학연구』에 실린 논문들이 여성필자, 현대문학 분야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12) 외국문학과 비교문학의 경계를 나누기가 모호할 수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범박하게 두 나라 이상의 문학 작품이나 작가를 비교한 경우 비교문학으로, 다른 나라의 문학 작품이나 작가를 독자적으로 다룬 경우 외국문학으로 구분하였다.

13) 잡지연구는 『신여성』, 『여자계』, 『여원』 등 특히 여성잡지를 대상으로 특정 담론, 문화, 매체 전략 등을 다루거나, 논문 표제에 여성잡지나 특정 잡지의 이름을 표기한 경우에 한정했다. 신문연구도 마찬가지이다.

14) 기타로 아동문학, 청소년 문학 5편(1.6%), 만화 1편, 철학 1편이 있다.

보면 현대문학 분야의 연구는 작가연구, 단일 텍스트 분석, 문학주제론적 연구, 남성작가와 작품에 대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일 작가 및 작품론을 중심으로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7] 현대문학 분야의 작가별 논문 수

성별	작 가									총계
	박완서	박경리	강경애	나혜석	백신애	김명순	오정희	신경숙	최명희	
여성	10	8	7	7	3	3	3	3	3	47
남성	4	4	3	2						13

여성작가 중에서는 작가와 작품론을 포함하여 박완서 10편¹⁵⁾, 박경리 8편, 강경애 7편, 나혜석 7편 순으로 빈도수가 높았다.¹⁶⁾ 남성작가의 경우 염상섭 4편, 이상 4편, 이광수 3편 순이었다. 여성문학(사) 연구의 목적 중 하나가 기존 정전을 해체하고, 여성의 시각으로 정전을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 통계 결과는 이 같은 시도가 어느 정도 성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염상섭, 이상, 이광수 등 한국 근대문학사를 대표하는 남성작가들에 대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의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박완서, 박경리, 강경애 등 여성작가들에 대한 분석이 꾸준히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 등 기존문학사에서 ‘작품 없는 작가생활’로 폄하되어왔던 1기 여성작가들에 대한 복권은 ‘여성주의적 시각’을 견지한 학술지의 성격이 잘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반면 여성주의적 이론에 근접한 논문은 20편(6.2%)으로 낮은 편이다. 이론 관련 논문은 『한국여성문학론의 역사와 이론』(1호), 『페미니즘과 몸

15) 박완서의 경우 작가 사후 2011년 4월 제25회 학술대회 기획 후 25호 특집으로 ‘한국 근현대사와 박완서’에 5편의 논문이 실렸다.

16) 현대소설 분야와는 달리 현대시의 경우 김명순 3편, 김승희 2편 외에는 단일작가, 작품론이 드물었다.

으로 길 찾기」(5호), 「새로운 주체성의 서사를 위한 기획과 여성적 주체성의 서사」(5호), 「여성, 민족, 그리고 문학에 관한 몇 가지 단상」(9호), 「여성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에 관하여」(11호), 「페미니즘 미학의 기본 개념과 방법」(15호),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효용성과 고전문학사」(16호), 「근대 초기 여성교양의 성립과 파트너십 문화론의 계보」(17호),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18호), 「정조, 38선, 퇴폐, 그리고 문학사-풍기문란과 냉전 프레임을 중심으로」(22호), 「근대 여성작가의 지식/지성 생산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24호), 「중세의 여성 지성과 문자의 관계」(24호)가 있다. 여성문학론이나 여성문학사 방법론, 여성지성사와 관련된 논문을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여성글쓰기, 여성담론과 같은 어구가 제목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 내용이 작가, 작품론 중심이면 제외했다. 또한 15호 특집 「여성문학 연구의 쟁점과 반성적 성찰」에 실린 「고전시가 여성화자 연구의 쟁점과 전망」,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의 동향과 전망」, 「현대 시비평에 나타난 성별화 전략」, 「근대소설연구에서 몸 담론의 전개과정과 쟁점」, 26호 특집 「21세기 여성문학, 문화 연구의 쟁점과 전망」에 실린 「식민지 근대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불/가능한 싱글라이프」, 「여성문학」 트러블」, 「젠더지형의 변화와 페미니즘의 미래」는 여성문학 연구의 쟁점 도출, 연구사 점검 및 과제 제시, 새로운 비평 이론 모색 등을 피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론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전체 논문 수에서 이론 관련 논문이 6.2%에 불과하다는 것은 여성문학 연구 장 안에서 여성주의 및 젠더이론의 창출이 적극적으로 개진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물론 이론과 개별 작가, 작품론 및 주제론이나 양식론을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반론도 나올 법하다. 하지만 여성문학 연구가 국문학 연구 분야의 '새로운 영토'라는 지금까지의 주변부적 연구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제도-아카데미로서의 국문학 연구 장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유도하고, 그 연구 장을 다시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문학 이론의 창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통계결과에서 드러나는 여성연구자-현대문학 중심의 게토화에서 벗

어나는 방법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부수적으로 『여성문학연구』의 고유한 특성은 기획논문, 자료발굴, 번역 자료, 서평에서 찾을 수 있다. ‘기획’은 창간호부터 6호까지 지속되다가, 7호부터 일반논문으로 수렴되었다.¹⁷⁾ 학회 초기에 이루어진 이 기획들은 근대 초기 및 식민지 시기 여성작가들의 재조명, 페미니즘 문학(이론)의 정체성 확립 등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나혜석 연구’는 1호 기획주제였다. 이처럼 나혜석에 연구가 집중된 것은 그녀가 근대성과 여성주체의 형성과정을 대표적으로 체현한 작가이며, 시인이자 소설가, 에세이스트, 페미니즘 사상저술가로서 다양한 지적 편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성과 여성성 간의 관련양상을 규명하는 데 초기 학회 및 학술지 성격이 정향되어 있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자료발굴과 자료에 대한 해제는 이후 연구자들의 후속연구를 위한 원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여성문학 연구를 진작하는 데 기여했다. 기존 작품집에 실리지 않거나 자료의 존재 여부는 알고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조명받지 못 했던 작가와 글이 발굴의 대상이었다. 나혜석의 작품, 김명순의 창작집 『애인의 선물』, 임순득의 소설, 16세기 송덕봉의 시 작품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다.¹⁸⁾

17) 1호 나혜석 연구, 2호 해외문학 소개, 3호 여학생, 여급과 공공영역의 수사학, 4호 백신애 문학연구, 5호 한국사회에서 페미니즘 문학의 정체성과 방향, 6호 아동문학과 페미니즘이 기획주제들이다.

18) 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호: 나혜석, 『모된 감상기』, 『희생한 소녀에게』, 2호: 김편주(김일엽), 『청상의 생활』, 3호: 1910~20년대 초반 여자일본유학생 목록, 4호: 일본의 신여성 운동과 잡지 『세이토』, 5호: 기생 잡지 『장한』, 6호: 한무숙 일본어 소설 『등불 드는 여인』, 7호: 김명순 창작집 『애인의 선물』, 8호: 임순득 소설 『대모』, 9호: 16세기 여성시인 송덕봉 작품집, 10호: 김일엽 『남녀연합토론회-부여사 강연』, 『세계 사조와 조선 여자』, 15호: 해평 윤씨 한문 상언(上言)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글의 번역 및 해제도 이루어졌다. 이상경(해제) 『일본 히라츠카 라이초우(平塚らいてう)의 글과 『세이토(靑鞆)』의 논쟁』, 김경원(번역) 『“개인”으로서의 생활과 “성”으로서의 생활 사이의 투쟁에 대하여』(『세이토』 5권 8호, 1915년 9월), 『모성의 주장에 대하여 요사노 아키코 씨께 드림』(『문장세계』 1916년 5월호), 『어머니로서 보낸 일년간』(『부인공론』 1917년 5월호). 이상 14호.

자료발굴은 학술지 초기 1호부터 10호까지는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이후에 상시적인 기획으로 자리잡지는 않았다. 때로는 자료발굴 대신 번역 자료가 실리기도 했다. 특집, 일반논문, 서평이라는 현재 학술지 논문의 체제는 11호부터 정례화되었다.

이상 학술지의 전체 논문을 필자, 대상 시기, 연구 분야, 작가 분포도, 학술지 체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통계 및 분석 결과는 『여성문학연구』가 생래적으로 여성문학이라는 특정 분야의 독자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기도 하지만 자칫 여성필자-현대문학-작가, 작품론 중심의 게토화에 머물 위험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게토화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은 5장에서 자세하게 서술할 것이다.

4. 여성의 관점에서 한국문학 연구를 젠더화하기(gendering)

학술대회 주제와 학술지 분석에서 충분히 밝혀졌듯이 여성문학 연구는 기존의 국문학 연구 방법론을 혁신하고, 문학사적 시각을 교정하고 넓힐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1990년대 근대 비판과 근대 이후를 모색하는 움직임들 속에서 여성문학론은 탈근대 기획을 대표하는 문학이론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탈근대담론은 동일성보다는 차이,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이 빚어내는 틈과 균열에 주목했고, 그 와중에 여성문학론은 탈근대담론이 내세우는 차이의 정치를 수행할 수 있는 이론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최근 여성문학 연구는 문화 연구, 문학제도 연구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가는 추세다. 1990년대 여성문학 연구가 여성성, 여성적 글쓰기, 여성작가들의 작품 발굴과 재해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천 년대 여성문학 연구는 기왕의 연구 성과를 수렴하면서 문학제도와 일상사, 문화사 등 학제 간 연구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식민지 시기와 전후 여성작가들의 등단과정에 대한 연구, 『여자계』, 『신여성』, 『여성』, 『여원』 등 여성

잡지 연구, 여성교양 담론에 관한 연구 등이 이런 연구 경향의 산물이다. 또한 근대성, 민족주의, 식민주의, 파시즘 등을 젠더 정치학이나 젠더 위계질서와 관련하여 조망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은 여성문학 연구가 남성 중심의 문학 제도와 이른바 정전(正典)으로 불리는 남성 작가 위주의 작품으로 기술되어 있는 문학사 서술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되었다는 본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성문학 연구자들은 보편적이거나 객관적인 연구방식이 기실은 남성중심의 젠더정치학에 기반해 있다는 사실을 비판하면서 여성의 관점에서 이론을 재입론화하고자 했다. 그 결과 국문학 연구에서도 젠더에 무관심한(gender indifferent) 기존 연구 태도에서 벗어나 젠더에 민감한(gender sensitive) 연구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일례로 『민족문학사강좌』 1995년 판에서는 여성문학과 관련된 장이 별도로 없고, 일반적인 시대순 문학사 서술의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2009년 개정판에서는 여성문학 장이 별도로 추가되었다. 「여성문학의 전개와 여성의 목소리」(김동준)와 「여성의 관점에서 본 근·현대문학사의 (재)구성」(김양선)은 각각 고전문학과 근·현대문학(사)를 여성의 시각에서 서술해야 할 필요성과 방법론을 모색한 글들이다. 비단 여성문학뿐만 아니라 아동, 대중문화, 풍속 등으로 국문학 연구의 주제 영역이 확장되면서 여성문학 역시 기존 국문학 연구의 협소한 틀과 방법론을 갱신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 발견되었다.

또한 신진 여성연구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 “국문학 분야에서 여성(주의) 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비주류임을 자칭하는 것”이라는 이전 세대 여성연구자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롭다. 일단 대학에서의 국문학과와 같은 아카데미 제도의 교수진에서도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으며, 신진 여성연구자들이 페미니즘을 수용하는 태도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들은 문학이나 문화, 담론 분석과 젠더 연구 간의 경계를 횡단하면서 새로운 연구성과물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여성문학 연구의 독자적 존립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된 것, 신진 여성연구자의 증가 등은 국문학 연구 분야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이 관철된 소중한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국문학 강좌에서 여성문학, 여성문학 연구자는 여전히 주류가 아니다.¹⁹⁾ 학계의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학술대회 주제발표에서도 여성문학 방법론이나 여성주의적 관점은 여전히 하위 주제 중 하나로 배치된다. 간헐적으로 특정 작가를 집중적으로 재조명하더라도 여성작가에 대한 재조명은 여전히 여성연구자들만의 '리그'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특히 고전문학 분야에서는 남성연구자들이 여성작가나 여성의 글쓰기, 문화를 연구 주제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인 데 반해, 현대문학 분야에서는 여전히 여성문학, 여성작가 연구는 여성연구자들이 담당하는 성별 분리가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여성문학 연구자이기 때문에 국문학계 내부에서 소외되는 상황, 여성문학 연구의 독자성을 국문학자로서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연구와 강의 양 측면에서 관철할 수 없는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생물학적 여성이 반드시 여성문학을 연구해야 한다는 성적 환원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진 여성연구자의 수는 늘어난 반면 여성

19) 주류, 비주류를 나누는 것 자체가 차이 속의 평등을 지향하는 여성주의 관점과 상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 비주류란 국문학 분야의 세부 연구주제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의미를 한정하고자 한다.

여성연구자가 여성문학 연구를 한다는 것은 '소수의 소수'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여성연구자들의 현실적 조건은 예나 지금이나 열악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국문학 분야의 여성 전임 교수 비율은 (공식적인 통계 수치는 없으나) 여대를 제외하면 한 과에 한두 명, 많아야 두 세 명 정도로 극히 작다. 최근 각 대학에서 글쓰기나 발표와 토론, 인문학 교양 등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힘입어 해당 분야를 전담하는 강의 전담이나 비정년 트랙 교수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성연구자들이 이 쪽 분야에 적을 두고 있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강의 전담이나 비정년 트랙 교수 전체 비율 중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신분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여성을 배치하는, 또 다른 젠더 위계 전략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문학 연구자의 경우 강의 현장에서는 글쓰기나 토론 등을 가르치면서 이와는 별개로 개인 연구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문학과 관련된 의제 창출 및 기획, 실무 등을 담당할 충분한 아웃풋으로 연동되지 못 하는 역설적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5. 여성문학 연구의 곤경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권명아에 따르면 지금 한국의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은 그만(no more feminism)”이라는 집단 정서와 “또 다른 페미니즘”을 향한 시도 사이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학문장 내에서 페미니즘 연구가 하나의 권력이나 제도가 되어 버렸다고 보고 있다.²⁰⁾ 필자는 여성문학 연구가 국문학 연구 영역 내에서 권력화 될 만큼 담론적, 실천적 힘을 지니게 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성문학 연구가 제도화되거나 ‘새로운’ 문학연구방법론 중의 하나로 소비되면서 1990년대 이전의 현장 비평이나 여성(주의) 연구의 미래에 대한 성찰과 같은 실천적 맥락을 상실했다고 본다. 이천 년대 이후 탈구조주의, 탈중심성이 문학 장에서 강조되면서 여성문학이 탈근대, 탈중심 담론의 일종으로 주목을 받기는 했으나, 이후 중심/주체의 해체가 가속화되면서 여성, 여성성, 여성문학이라는 ‘젠더’가 기입된 명칭은 오히려 불편하게 여겨지고, 그저 무한한 차이‘들’ 중의 하나로서 정치적 의미를 상실하였다. 안팎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천 년대 이후 제도권으로 진입한 여성문학 관련 학회가 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시스템으로 수렴되면서 여성문학 연구 및 비평 본래의 비판성이라든가 실천성을 상실하고, 이른바 시스템이 요구하는 학술적 글쓰기의 틀 안에 갇힌 것도 현재 여성문학 연구가 처한 곤경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문학 연구의 제도화와 여성(주의) 문학론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모호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게다가 인문학

20) 권명아, 『불/가능한 싱글 라이프: 번역가능성과 번역불가능성 사이의 삶과 죽음』, 『여성문학연구』 2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97면.

분야 연구자들의 위치가 대개 그렇겠지만 여성문학 연구자의 불안정한 지위, 학회 중심의 닫힌 연구풍토 등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방략은 없는 것인가? 필자는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문학 연구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성찰, 재정립이다. 여성문학 (연구)는 남성중심의 문학 (연구) 장에 대한 도전이라는 강력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재 여성문학 연구는 다양한 ‘차이(들)’ 중의 하나로 인식되거나, 최근 문학연구의 경향을 되받아 쓰는 과정에서 잡지, 신문 등에 나타난 여성들의 글쓰기나 흔적을 찾는 등 ‘자료’의 숲에 갇혀 ‘여성적 시각’이라는 본래적 의미를 점차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도대체 여성문학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보다 ‘왜’ 해야 하는지 발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문학 연구 영역의 확장이다. 지난 13년 동안 <한국여성문학학회>는 근대성, 민족주의, 탈식민주의와 여성성, 정전, 제도와 양식의 문제, 여성작가 발굴 및 재조명, 여성의 글쓰기, 여성주의 문화론 등 여성문학/문화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주제들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여성 연구자-현대문학-작가, 작품론 중심의 게토화를 벗어날 수 있는 연구 주제들을 모색해야 한다. 앞으로 독자적인 여성문학사 서술, 여성의 글쓰기를 추동하는 여성적 감성 구조 규명, 장르/양식과 여성 간의 관계, 우리 현실에 적합한 여성문학 이론 정립 등으로 연구영역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부수적으로 최근 인문학 연구 분야의 주 흐름인 잡지, 신문 등 매체 연구, 제도 연구, 일상성 연구에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철학이나 역사학, 언론학, 문화학, 사회학 등에서 여성의 역사와 일상, 문화에 주목하는 것과 문학 연구 간의 차이가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 물론 특정 영역의 게토화는 경계해야 하며 학제 간 융·복합이라는 근자의 학문 흐름과도 상반된다. 하지만 비슷한 자료, 비슷한 방법론과 서술 태도로 비슷한 결론을 내놓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기왕에 여성문학연구가 ‘차이’에 주목했다면 이제는 그 ‘차이’를 여성문학 연구 내부에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신진연구인력의 양성을 통해 학문 후속세대가 여성문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적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이는 학회의 연구 인력 재생산에도 기여할 것이다. 현재 학회 이사진이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견연구자들은 대개 80년대, 90년대 초반 학번으로 여성운동이나 문학 이론의 세례를 받았거나 집단적인 연구 경험이 있던 세대이다. 즉 여성문학 연구의 독자성 및 필요성을 체득한 세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회 연구나 기획과 같은 실무가 이들에게 쏠리고, 90년대 후반 이후 세대의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 지금과 같은 계토화현상은 심화되고, 여성문학 연구의 쇠신은 더 난망해질 것이다. 따라서 학회 소모임이나 학술대회 발표의 장을 신진 여성문학 연구자들에게 개방하고,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것이 급선무다.

넷째, 국문학 연구 장을 벗어나 동아시아 여성문학, 영미 여성문학과의 접점을 찾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경우 전근대성과 근대성의 교착 양상, 식민성과 탈식민성, 여성 글쓰기의 열악한 환경 등 한국문학과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초기 영미 페미니즘 문학이론²¹⁾이나 줄리아 크리스테바, 엘렌 식스, 루이스 이리가라이 등의 프랑스 페미니즘 이론, 가야트리 스피박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이론이 한국 여성문학 연구에 끼친 영향력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한국 여성문학 이론은 서구의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경험과 ‘다른’ 점, 예컨대 여성작가의 글쓰기 환경, 여성으로서의 글쓰기, 여성의 고유한 말하기 전략, 여성문학의 정치성과 같은 쟁점에 대해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의 질문을 해야 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여성문학과의 공통향을 탐색하는 것, 영미 여성문학을 수동적으로 되받아 쓰는 데 그치지 않고 ‘(탈)식민적’인 ‘여성주체’의 맥락에서 전유하는 것은 지역별, 민족별로 ‘같으면서도 다른’ 여성문학의 쟁점 및 전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21) 일레인 쇼월터의 『황무지에 선 여성문학』, 버지니아 울프의 『자신만의 방』, 산드라 길버트·수잔 구바의 『다락방의 미친 여자』 등.

참고문헌

1차 자료

『여성문학연구』 1~27호.

2차 자료

권명아, 「불/가능한 싱글 라이프: 번역가능성과 번역불가능성 사이의 삶과 죽음」, 『여성문학연구』 2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71~191면.

소영현, 「제도과 문학: 문학의 아카데미즘화와 학술적 글쓰기의 형성」, 『한국근대문학연구』 2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0, 265~299면.

이상경, 「한국 여성문학론의 역사와 이론」, 『여성문학연구』 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9~35면.

장일구, 「『국어국문학』 60년, 현대문학연구의 지층」, 『국어국문학』 160호, 국어국문학회, 2012, 185~213면.

최기숙, 「탈경계 이후의 도전-‘여성’-‘고전’-‘문학’-‘사’를 매개하는 젠더비평의 학술사적 궤적과 방향」,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창립 심포지엄-각 학문 영역에서 여성주의 연구의 도전과 과제 자료집』,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2012.

Abstract

The Development and Task in the Field of Korean Women's Literary Study

-focused on <The Academic Society of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Kim Yang-sun

This thesis intends to look into how <The Academic Society of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produced the feminist issue related with the women's literature/culture, how it showed the change of the academical-institutional field in the women's literature. That academic society can be evaluated that it enlarge the territory of women's literature in the public institution.

In third chapter, this thesis surveyed the themes of regular conferences and the representative publications which is projected by this academic society. And then, this thesis analyzed the journal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in the aspects of scholar's sex, period of study object, writer who became the study object, etc, for examining the binding force of women's point of view. The result of investigation is as follows. This journal is focused at women scholar's academic writing, modern literature, and the study on writer or literary works(novels or poems). It means that this journal pursues the identity as the women's literature essentially, but it has some limitations of ghetto which are focused on the women scholars-modern literature-study on the women writers or literary work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women's literary study and the

ambiguous identity as the feminism must be overcome or solved in the future. The concrete strategies are as follows. First, the fundamental self examination about women's literary study. Second, the expansion of the sphere of women's literary study. Third, fostering of post generation. Fourth, exploration of 'same but different' issues and prospect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n literature and Eastern or Western Female literature.

Key words: Korean women's literary study, field of literary study, The Academic Society of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women's point of view, ghetto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